



위암 (胃癌)



문영명

1. 위암의 원인

한국에서 암으로 사망하는 수는 연간 약 5만명에 이르며, 이중 가장 많은 것이 소화기계등의 암으로 특히 한국이나 일본의 남자에서는 20% 이상이 위암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나 일본은 위암의 왕국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1950년대의 위암 발생율은 상당히 높았으나 1970년대에서는 가장 낮은 발생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냉장고의 보급으로 인하여 신선하고

깨끗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고 따라서 변질된 음식에 발생하는 발암물질의 섭취가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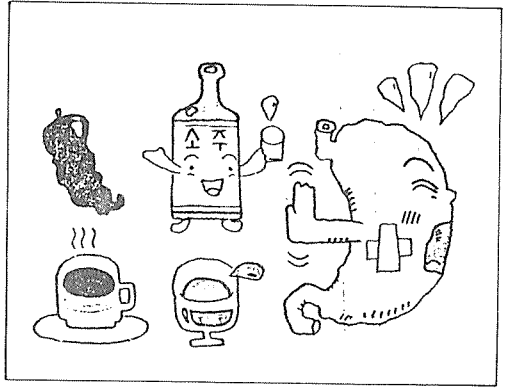
음식물의 종류 중에서 어떤 음식물이 암을 잘 일으키는가 하는 것은 논란이 많으나 대체로 짠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에서 위암의 발생율이 높다고 한다. 한국인의 하루 소금 섭취량은 약 20그램 정도로 서양인보다 두배 가까이 많이 섭취하고 있으며, 특히 소금에 절인 생선을 먹는 습관이 있는 한국, 일본, 핀란드, 아이슬란드등에서 위암의 발생율이 높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할 것이다.

그외에도 태운 음식이나 비타민 부족, 훈제된 식품, 방부제로 쓰이는 아질산염등이 암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이중 비타민에 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비타민 A가 실험적으로 항암효과가 있고 비타민C는 식품내 발암물질이 생성되는 것을 억제한다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이다.

고추같은 매운 음식에 관해서는 아직 그 설이 많으나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멕시코에서 위암의 발생이 적은 것으로 보아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

나 술과 담배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술을 많이 마시는 나라의 보고들을 보면 위암발생과 관계가 있다고 추측되고 있다.

유전적인 원인도 무시할 수 없는데, 위암환자의 1세대 자손들에게 위암의 발생율이 높고 A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위암의 발생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외에 위폴립이나 위축성 위염을 가진 환자에게 위암의 발생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이러한 질환이 위암의 전구질환으로 고려되고 있다.



하면 위벽의 전 층을 침범하고 이러한 암세포는 위벽 밖으로 직접 퍼져 나가거나 혈류, 임파관을 따라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나가게 되는 것이다.

대체로 짠 음식, 태운 음식, 훈제식품 등을 많이 먹는 사람에게서 위암 발생률이 높다.

2. 위암의 발병경로

암세포가 어떠한 경로로 생기게 되는가 하는 것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아마도 정상세포의 증식조절의 기능을 가진 유전자의 변형때문에 증식조절이 되지 않는 세포가 생겨나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비정상적인 세포가 이상증식을 일으키는 암으로 이행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따라서 위암의 경우 초기에는 암세포가 점막내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우 우리는 조기위암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발견된 환자의 예후는 아주 좋다.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경과

3. 위암의 증상

위암의 증상은 변화가 많아서 전혀 증상이 없는 경우에서부터 격심한 통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암의 증상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소화기 증상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위암의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있다고 하더라도 경미하여 약간의 소화 불량이나 상복부 불편감을 느끼는 정도이므로 건강한 성인, 특히 장, 노년층의 건강하던 사람이 소화기 증상을 느끼게 되면 반드시 검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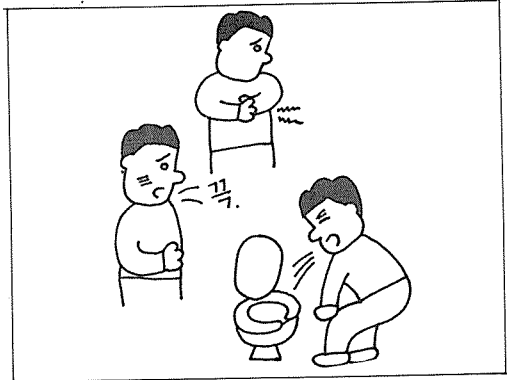
받아 보아야 할 것이다.

위암이 진행되면 대개는 입맛이 떨어지고 체중이 감소하게 되며, 상복부에 동통이나 불편감, 팽만감 등이 생기며, 원기가 쇠약해지고 의욕을 잃게 된다.

구역질은 위암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인데 위의 다른 질환에서는 구역이 나타나더라도 치료후 없어지거나 그냥 두어도 며칠내에 자연스럽게 소실되지만 위암에서는 투약을 하더라도 호전이 없거나 며칠후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

위의 입구인 분문부에 암이 생기면 음식을 삼키거나 어려워 지거나 구토가 식후 즉시 나타나며, 동통도 명치에 국한되거나 가슴으로 방사되는 경우가 많은데 반하여, 위의 출구인 유문부에 암이 생기면 음식물이 장으로 배출되는데 장애를 받기 때문에 위내에 음식물이 저류되어 상복부에 중압감이 심하고, 식후 상당기간 소화되지않아 고생하는 경우가 많고 식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후 구토가 일어나며 악취가 나는 경우가 많다.

위암의 호발부위는 위하부에 많이 생기게 되며, 그 생기는 양상이 궤양형, 돌출형 또는 침윤형등이 있으며, 그 형에 따라 나타나는 증



상이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동소이하여 증상으로 구분되지는 않다.

진행된 위암에서는 때로는 배속에서 종괴를 만질수도 있으며, 출혈이 있는 경우 흑색변이나 토혈을 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빈혈이 생길 경우 안면이 창백해지며, 빈혈에 의한 여러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또 병이 진행되어 간이나 기타 다른 장기로 전이될 경우 이로 인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복막으로 전이될 경우 복수가 고이게 된다.

4. 위암의 진단

40대이후에서 위질환이나 소화장애가 지속되면 일단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야 한다. 요즘은 진단방법이 발전하여 환자에게 별 고통 없이 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간도 단시간에 시행할 수 있고 그

위암의 증상은 어떤 특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소화기 증상과 비슷하다.

정확도도 상당히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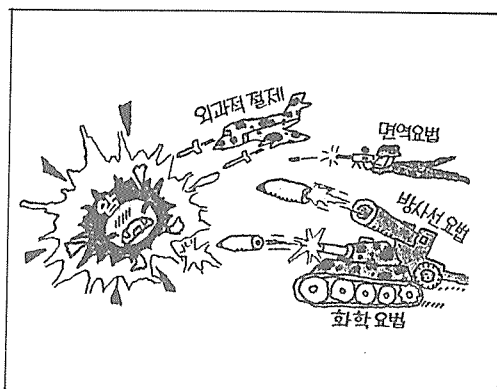
종래에 시행해 오던 위장X-선 촬영은 그 검사방법이 개발되어 이중조영법, 압박촬영법, 점막촬영법 등이 개발되어 조그만한 병변까지도 발견이 가능하게 되어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위내시경의 발달은 위속을 직접 눈으로 들여다 볼 수 있게 되고, X-선 검사에서 나타나지 않는 아주 작은 병변도 발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암이 의심스러운 장소에서 직접 조직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어, 그 진단율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진단방법의 개발로 인하여 위암의 조기진단은 가능해 졌으며 또 조기위암의 발견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환자의 협조없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웃 일본에서는 이동검진차를 이용하여 각 지방에서 일반대중을 상대로 집단검진을 실시하여 많은 수의 조기위암환자를 발견하여 위암의 치료에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같은 위암 발견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아직 정부의 예산이 뒷받침이 없는 관계로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국민 개



개인이 위암의 조기발견에 노력하여야 하겠다.

5. 위암의 치료

위암의 최선의 치료는 수술로서 병소를 절제해 내는 것이며, 따라서 완치를 목표로 하는 치료로서는 외과적인 절제방법 밖에는 없다.

외과적인 절제방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일단 완치를 목표로 하는 수술에서는 가능한 한 넓은 범위를 포함하여 절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술후 광범위한 절제로 인한 휴유증을 고려하여 그 절제범위를 정하게 된다. 이때는 위 뿐만이 아니라 주위 임파선을 포함한 여러장기도 포함되게 되므로 상당히 큰 수술이 된다.

그러나 위암이 다른 장기에 전이되었을 경우에는 근치수술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이때에는 항암제

위암의 최선의 치료는 수술로서, 병소를 절제해 내는 것이다.



암(癌) 예방, 어떻게 할 것인가? (1)

투여 등 다른 방법을 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위유문부의 협착 등으로 인하여 환자가 음식물의 섭취가 어려울 때는 위공장문합술 등으로 환자의 영양섭취가 가능하게 하는 보조적인 수술요법을 시행하기도 한다.

항암요법으로는 흔히 쓰이는 항암제로서, 암의 성장을 억제하여 생명의 연장을 기도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는 완치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일시적인 증상의 완화나 약간의 생존기간을 연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항암제는 그 부작용이 심하여 때로는 그로 인하여 생명을 단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사용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위암에서의 일반적인 사용은 수술후 재발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즉 수술후 일정 기간동안 항암제를 투여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재발되는율이 투여하지 않는 환자에 비하여 낮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따라서 많은 병원에서는 수술후에 항암제 투여를 권하고 있다.

6. 위암의 예방

위암을 예방한다는 것은 그 원



인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나, 다음의 몇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어서 암의 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현재까지 알려진 위암과 음식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짬 음식이나 자극성이 심한 음식, 부패된 음식, 질소산화물이 많이 첨가된 음식은 삼가하는 것이 좋겠으며, 가족중에 위암환자를 가진 사람들은 40대이상의 호발연령이 되면 주기적으로 위에 대한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조기에 병을 발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또 위에 암의 전구질환으로 생각되는 병변을 가진 환자들도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겠다. 즉 위폴립이나 만성위축성비염을 가진 환자들은 주기적인 검사를 받음으로써 위암발생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72

40대 이상이 되면 주기적으로 위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여 초기에 병을 발견토록 노력해야 한다.

〈필자=영동세브란스병원 내과과장〉

암·성인병 등의 의학적 연구 위한 센터 건립

安弼濬보사부장관, 신년사서 밝혀

安弼濬 보건사회부장관이 壬申年 새해를 맞이해 新年辭를 발표했다.

安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에는 콜레라 확산방지, 129응급의료체계 가동, 영세민 생계 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대 배치, 효율적 의료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지역의 보 누적적자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전개, 큰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또한 安장관은, 『올해에는 증대되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사시책에 반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올해의 중점사업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전염병 예방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각종 질병관리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암에 대한 전문적 치료 및 암·성인병에 대한 활발한 의학적 연구를 위해 국립 암센터 건립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올해에는 1천억원을 용자·지원하여 7천개의 병상을 증설함으로써 병상 부족현상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셋째,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자금 대여와 자녀학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노인과 장애인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健協 崔振學 회장, KBS에



최진학 회장

건강관리협회 崔振學 회장은 지난 1월7일 불우이웃돕기 성금 1백6십여만원을 KBS에 전달했다.

이 성금은 건협 임직원들이 연말연시를 맞아 불우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금한 것이다.

간병·상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在家복지봉사센터 설치·운영 사업을 새롭게 실시할 계획이다.

네째, 국민연금 적용 대상을 5~9인 사업장으로까지 확대하고 보다 많은 노인들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할 것이다.

한편 安장관은, 『새해의 이 모든 사업은 보건의료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발적인 참여없이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합심·협력하여 보사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선진 복지사회 실현에 이바지하자』고 당부했다.